

# ‘조문(繩文)문화론’과 원시 환동해(環東海)교류에 관한 고찰\*

이 창 수\*\*

echance@khu.ac.kr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옥(玉)의 생산 및 환동해교역 |
| 2. 조문문화론의 형성과 전개 | 5. 산나이마루야마유적의 의미    |
| 3. 토기와 조문인의 대외교류 | 6. 맺음말              |

Key Words : 조문문화(jomon culture), 조문토기(jomon pottery), 고리형귀걸이(ketsujou mimikazari), 산나이마루야마(sannai-maruyama), 환동해(east sea rim)

## 1. 머리말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서양 중심 사관을 극복하고 일국주의 혹은 국민국가사관의 지양, 그리고 문헌사료 중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현대 역사학 연구의 흐름을 반영한 동아시아론, 동북아시아론, 그리고 바다의 관점에 입각한 ‘해역아시아론’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에 따라 개별 국가 및 국경을 넘은 정치, 경제 및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테마로는 원시 및 고대의 복수적 지역세계, 이동 및 교역 네트워크, 고대 정치 및 외교 시스템, 그리고 기술과 정보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慶熙大學校 日本語學科 副教授.

이동 및 교류 등 문화사영역 등에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등 학문적 연계를 통해 실체적 관계와 교류의 흔적을 찾는 통섭적 연구성과도 적지 않다. 또한 이러한 성과들은 이제까지 부족한 연구 영역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복수의 이질적 세계를 하나의 문화영역으로 아우르는 ‘넓은 구상력’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를 고립되고 정체된 세계로 인식해 왔던 소위 ‘아시아 정체론’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시각을 제시하며 새로운 문화연구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연구는 기존의 일국중심적 시야를 넘어 그 시각을 쌍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닫힌 틀 속에서의 인식, 즉 중심 측에서 역사를 보는 관습에 익숙한 지금까지의 동양사, 일본사에 대한 안티테제이기도 하다.<sup>1)</sup>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일본의 원시 및 고대 동아시아 연구대상으로 관심이 높아진 지역이 이른바 ‘우라니혼(裏日本)’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동해(東海)에 면한 서일본지역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일본에서는 야마토(大和)조정의 발상지인 긴키(近畿)지방이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동해에 면한 서일본지역은 상대적으로 변방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일본의 最古문헌이라 할 수 있는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이 지역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그러한 경향은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조몬(縄文)시대 연구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일본지역에서 전개된 조몬유적의 발굴성과는 그 동안 동일본(東日本)중심의 조몬문화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조몬문화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유적발굴과 더불어 문명교류사적 관점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시 환동해(環東海)<sup>2)</sup>교류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桃木至朗編(2008), 『總説』,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pp.1~12.

2) \* 필자주 : 본고에서 말하는 ‘동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동해(東海)를 지칭하며 본고에 제시되어 있는 일본학자들의 인용문에 보이는 ‘동해’는 원문에 모두 ‘日本海’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 2. 조몬(縄文)문화론의 형성과 전개

‘조몬’이라는 명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78년 에드워드 S. 모스가 오모리(大森)패총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모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서양의 과학사상과 일본의 독자적인 토기편년연구가 결합되어 탄생한 야요이(弥生)시대 이전의 원시 또는 선사시대를 말한다.

조몬시대가 일본역사와 문화에서 갖는 의의라고 한다면 지질학적으로 볼 때 대략 1만 6천년전 홍적세(洪績世)에서 충적세(沖積世)로 이행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지금의 일본열도가 형성된 시기와 같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이전까지는 육지를 통한 인간과 동물의 왕래가 있었지만 일본열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떨어져 섬나라가 된 이후에는 육지를 통한 교류는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열도 내에서는 독자적인 선사문화가 성숙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sup>3)</sup>

이러한 특징을 갖는 조몬시대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에드워드 모스를 기점으로 하여 그의 연구방법을 계승한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도리이류조(鳥居竜藏) 등 선사고고학자들의 왕성한 유적발굴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890년에서 1920년대에 걸친 초기 조몬시대 연구의 주류는 그 유적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인종, 민족론이었고<sup>4)</sup> 그 연구방법도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기 보다는 토속학적인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결과로 제시된 것은 아이누의 전설적인 조상으로 알려진 콜로포클설, 아이누설 등 ‘선주민론’이 지배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인 조상이 최초로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열도 내에는 수많은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민족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인식<sup>5)</sup> 또는 역사학자 기타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일본민족구성론<sup>6)</sup>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3) 埴原和郎(1993), 『日本人の形成』, 『岩波講座・日本通史1』, pp.90~91

4) 岡本勇(1998), 『縄文と弥生』, 未来社, p.16

5) 柳田国男(1917), 『山人考』(『定本柳田国男集(第4卷)』, 筑摩書房, 1963, pp.172~173)

6) 기타는 일본열도의 선주민을 동서로 나누어 서방민족은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구마소와 하야토라 불리던 남방계 민족이고 동방민족은 아이누, 예조로 불리는 세력으로 이들이 조몬시대 일본열도에 거주하던 선주민으로 보고 나중에 대륙에서 천손민족이 도래하여 이들과 혼혈, 동화시켰다 설명하고 있다.(喜田貞吉(1979) 『日本民

배경에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천손강림(天孫降臨)신화를 반영한 강력한 국체(國體)사관에 입각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들 선주민은 천손민족에 의해 동화, 복속되었다는 이른바 ‘인종치환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형질인류학적 분석방법의 도입은 조몬인을 ‘선주민론’에서 ‘일본인원형론’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기요노 겐지(清野謙次)는 조몬유적에서 얻은 인골을 수집, 이를 면밀하게 계측한 결과, 조몬인과 아이누의 인골 형태의 차이가 당시 현일본인과 아이누의 차이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석기시대 일본열도에는 아이누와 현 일본인의 조상이 공존했다는 소위 ‘원일본인설’을 제기하였고<sup>7)</sup> 하세베 고토도(長谷部言人)는 인종의 가변적 성질에 주목하여 조몬시대 이래 일본인의 체질변화는 혼혈보다는 생활양식 및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륙인 일부가 일본에 건너와 정착하면서 때로는 이상변화를 체험하다가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다”<sup>8)</sup>는 주장을 펴면서 조몬인을 선주민이 아닌 일본인의 실제 조상으로 보았다. 이들 형질인류학적 인종연구의 핵심은 조몬문화가 선주민이 아닌 원일본인의 문화로 파악함으로써 일본인의 연면성을 인정하는 주요근거를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하니와라 가즈오(埴原和郎)는 분석영역을 넓혀 조몬인의 인골을 주변지역(동아시아, 오세아니아)의 고인골과 비교분석하여 조몬인과 가장 가까운 인종은 아이누이며 그 다음은 오키나와인인 반면 에스키모, 퉁구스, 몽고, 한국인, 중국 동북부인등과는 형질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조몬인은 신석기시대 동아시아에서는 이질적 인종이라는 이른바 ‘신일본인기원설’을 제창하기도 했다.<sup>9)</sup> 이는 조몬인이 형질적으로 농경과 목축민의 전통을 받은 대륙인과는 달리 채집생활에 머문 구석시시대인의 직계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종, 민족론입장은 현재에도 수많은 형질 인류학적 데이터의 축적과 새로운 연구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族の構成」『喜田貞吉著作集8』, 平凡社, pp.52~63)

7) 清野謙次(1944), 『日本人種論變遷史』, 小山書店, pp.55~60

8) 長谷部言人(1973) 『日本民族の成立』, 『論集・日本文化の起源5』平凡社, pp.111~114.

9) 埴原和郎(1993) 『日本人集團の形成—二重構造モデル』, 『日本人と日本文化の形成』朝倉書店, pp.268~274.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이들 학설이 조몬인 형성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몬인을 일본인의 실제 조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 의해 창출된 조몬문화의 주역으로 보는 것은 성격을 달리하면서도 공유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토기와 조몬인의 대외 교류

조몬시대는 토기(土器)의 출현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토기는 조몬문화를 상징하는 지표유물이다. 일본에서 일찍이 조몬토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 형식 편년체계를 확립한 자는 고고학자 야마노우치 스가오(山内清男)이다. 그는 1930년대부터 조몬 토기를 형태, 무늬, 제작방식에서 보이는 특징에 따라 조몬시대를 더욱 세분화하고 당시 야와타 이치로(八幡一郎) 등 서양의 고고학 개념을 도입한 ‘선사시대’, ‘신석기시대’라는 명명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토기를 중심으로 한 ‘조몬시대’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이러한 시대구분 및 명명법은 오늘날 일본역사의 시기구분법으로 정착되었고 그의 토기편년연구는 후대 고고학자들에 계승되면서 더욱 세분화과정을 거쳐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가장 정밀한 편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0)</sup>

한편 지역별로 조몬유적지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간토(關東)지역에서 도호쿠(東北), 홋카이도(北海道)에 이르는 동일본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기나이(畿内)지방과 규슈(九州)지방은 적다는 점, 그리고 조몬문화가 대륙과 교섭이 거의 없고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몬시대는 동일본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독자적 문화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인식이었다.<sup>11)</sup> 또한 1950년대이후 방사성동위원소(C14)의 반감기를 활용한 연대측정법의 도입으로 일본에서 발굴된 토기가 1만년이 넘는 계속수치가 나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라는 지위를 얻기도 했다. 따라서 조몬시대로 대략

10) 今村啓爾(1999), 『縄文の実像を求めて』, 吉川弘文館, p.7

11) 山内清男・佐藤達夫(1964), 『日本原始美術Ⅰ』, 講談社, p.143

1만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선사문화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토기문화는 조몬인이 독자적으로 창조해 낸 ‘일본문명의 원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sup>12)</sup>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조몬문화가 신석기시대에 속하긴 하지만 농경을 기반으로 금속기와 문자를 발명한 중국문명과는 달리, 조몬인은 수렵 및 채집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미개수준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고급수렵민으로서 동아시아국가와는 차별적인 문명화에 기여한 독자적인 문화로 평가해야 한다는<sup>13)</sup> 실질적인 조몬문화관이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토기 출현이 일본 내에서 자생했다고 보는 견해보다는 선사시대 동아시아와의 교섭에 따른 전파물로 보는 견해가 이미 초기 조몬연구자인 도리이 류조(鳥居竜藏)이후 제기되어 온 정설이기도 했다. 상기 언급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 기타 사다키치는 아오모리(靑森)의 가메가오카(亀ヶ岡)에서 출토된 토기 문양이 진나라 이전의 청동기시대의 것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고 아이누족이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동해를 무대로 한 대륙과의 직, 간접적인 교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sup>14)</sup>

또한 토기편년연구로 조몬문화관을 확립한 아마노우치 스가오도 조몬토기와 함께 동반 출토되는 마제석기와 석촉이 동시대의 대륙문화와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히며 그 기원을 바이칼호 부근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15)</sup> 특히 아와타 이치로(八幡一郎)는 일본열도 내의 빗살무늬(櫛目文)토기 분포지역이 북부규슈(九州)에서 간토지방에 걸쳐 있는 점,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토기의 원류를 아시아대륙 북부일대로 설정하고 아시아대륙북부지역의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과 상통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유입구를 동해로 지목했다.<sup>16)</sup> 또한 최근 기무라 히데야키(大村英明)는 후기 구석기문화의 석기군 양상이 시베리아대륙과

12) 佐伯有清(1986), 『日本の古代国家と東アジア』, 雄山閣, pp.5~6.

13) 谷口康浩(2010), 『縄文時代概念の基本的問題』, 『縄文文化の輪郭(縄文時代の考古学 1)』, 同成社, p.5

14) 喜田貞吉(1979), 『奥羽地方のアイヌ族の大陸交通はすでに先秦時代にあるか』, 『喜田貞吉著作集1』, pp.67~75.

15) 山内清男・佐藤達夫(1964), 앞의 책, pp.140~141.

16) 八幡一郎(1936), 『日本先史文化と大陸の關係』, 『北アジア考古学(八幡一郎著作集 4)』, 雄山閣, p.95

일체를 형성하고 그 동단에 일본열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몬문화의 원류를 시베리아지역으로 보는 등<sup>17)</sup> 그 기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최근 오누키 마사오(大貫靜夫)는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토기출현으로 시작된 신석기문화를 ‘농경형(農耕型)’과 ‘삼림형(森林型)’의 두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광의의 극동지역은 삼림형문화권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해<sup>18)</sup> 주목을 끌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몬문화의 원류를 막연하게 대륙에 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은 원래 공동된 신석기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조몬시대 이전에 동북아시아 일대는 이미 구석기시대말부터 넓은 범위에서의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흐름이 일본에도 이어져 조몬인의 조상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토기의 출현도 북방에서 이동한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전해진 유물로 볼 수 있으며 그 때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동해를 에워싸고 있는 환동해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마무라 게이치(今村啓爾)에 따르면 조몬시대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규슈지방의 토기가 한반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용기문(隆起文)토기에서 빗살무늬토기로의 변화와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조몬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친 토기 형태가 부산의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되고 또 동해연안에서 발견되는 결합식 낚시바늘이 규슈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해를 둘러싼 인간의 교류와 이동이 빈번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말하는 등<sup>19)</sup> 동해 북부지역 이외에도 일본의 규슈와 한반도르 잇는 동해 남부지역은 신석기시대에 이미 빈번한 교섭의 장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4. 옥(玉)의 생산 및 환동해 교역

최근 토기 이외에 조몬시대의 환동해 교류의 흔적으로 꼽을 수 있는 유물로

17) 木村英明(1997), 『シベリアの旧石器文化』,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pp.54~58.

18) 大貫靜夫(2010), 『縄文文化と東北アジア』, 『縄文文化の輪郭 (縄文時代の考古学 1)』, 同成社, pp.142~143.

19) 今村啓爾(1999), 앞의 책, p.184.

‘옥(玉)’제품을 들 수 있다. ‘옥’은 동해에 면한 서일본 원시유적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며 또 어느 곳을 원산지로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이 일본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근대 일본의 역사고고학자 기다 사다키치(喜田貞吉)는 선사시대 일본의 도호쿠(東北)지방에서 비취와 같은 경옥(硬玉)제품이 적지 않게 발굴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아이누족이 중국의 진나라시대 이전부터 대륙과 교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옥’은 일본에서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아시아대륙의 어딘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sup>20)</sup> 한편 선사고고학자 야와타 이치로(八幡一郎)도 조몬시대에 경옥(硬玉)을 원료로 하는 장식유물이 많이 출토된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나 역시 당시 일본 내에서는 옥이 발견되지 않아 그 원류를 동남아시아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21)</sup> 그런데 1939년 경옥의 원산지가 니이가타(新潟)현 이토이가와(糸魚川)市 히메가와(姫川)의 지류로 확인되었고 또 1951년에는 경옥제품을 가공한 취락도 발견되어<sup>22)</sup> 그 전파경로에 대한 연구는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와 같은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환동해지역에서는 단순히 옥을 생산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옥제품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옥의 종류를 보더라도 구옥(勾玉), 관옥(管玉), 대주(大珠)등 소재도 다양한데 이들 옥제품은 이즈모(出雲)에서 호쿠리쿠(北陸)지역에 이르기까지 서일본지역에서 제작되어 각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동해에 면한 서일본지역에서는 ‘옥’의 산출량에 따른 지역적 구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옥’과 그 제작기법을 알 수 있는 유적도 함께 발굴된다는 점에서 조몬시대에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옥’의 생산과 더불어 옥제품의 교역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비교문명학자 이토 순타로(伊東俊太郎)는 일본문화사의 기점에 해당하는 조몬시대에 동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옥’의 생산과 항해를 통한 교역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동해가 하나의 문명교

20) 喜田貞吉(1979), 『奥羽地方のアイヌ族の大陸交通はすでに先秦時代にあるか』, 『喜田貞吉著作集1』, 平凡社, pp. 67~75.

21) 八幡一郎(1936), 앞의 책, p.96.

22) 安孫子昭二(2002), 『縄文時代の渡来文化の研究略史』, 『縄文時代の渡来文化』, 雄山閣, p.13.

류권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고리형(玦飾) 귀걸이’이다.

일본에서 원시 및 고대의 옥제품 생산 및 교역에 관한 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후지타 후지오(藤田富士夫)는 조몬시대의 ‘옥’ 문화를 형태 및 유행의 변화에 따라 크게 3시기로 구분했다.<sup>24)</sup> 그 중 ‘고리형(玦飾)’은 초기 형태의 것으로 등근형태의 원석 일부를 잘라 C자형 고리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玦’이라는 말은 중국의殷周시대의 패옥으로 작고 한쪽이 갈라져 있는 물건에 유래하는 용어로 그 용도는 확실치 않았으나 1917년 오사카(大阪) 고후(國府)유적의 조몬전기 매장인골의 두개골 좌우 귀 부분에서 검출되어 그 용도가 귀걸이용 장신구로 밝혀졌다.<sup>25)</sup>

또 ‘고리형 귀걸이’는 일본열도에서 전국적 분포를 나타내는 조몬문화를 상징하는 주요유물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몬시대 초기 말에서 전기 초(약 6500~6000년전)에 왕성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적으로는 홋카이도에서 혼슈(本州), 그리고 규슈지방에 이르기까지 주로 동해에 면한 서일본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역사학자 기타 사다키치는 석기시대 유물 중 특히 도호쿠지방의 유물은 간토(關東)지방 것 보다 우수한 품질이 많고 또 경옥제 곡옥 등도 이 지역에서 많이 발굴된다는 점에서 이들 문화는 앞선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sup>26)</sup> 야마노우치 스가오도 고리형 귀걸이는 중국의 난징(南京)시 원시유적에서 출토되어 양샤오(仰韶)문화 및 룡산(龍山)문화에 속하는 유물로 파악하고 조몬시대 전기와 비교적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7)</sup> 특히 호쿠리쿠(北陸)지방

23) 伊東俊太郎(2008), 『比較文明学から見た日本海文明交流圏』,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p.30.

24) 3시기란 먼저 조몬시대 초기(早期)에 출현하여 전기(前期)에 성행하다가 중엽 중기에 쇠퇴한 ‘결식(玦飾)문화’, 두 번째로는 조몬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옥제대주(硬玉製大珠)문화’, 그리고 조몬시대 후기에서 말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보이는 ‘구옥(勾玉)과 관옥(管玉)문화’라고 한다.(藤田富士夫(2008), 『日本海をめぐる玉生産交流』,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p.52.)

25) 浅川利一・安孫子昭二編(2002), 『縄文時代の渡来文化』, 雄山閣, p.25.

26) 喜田貞吉(1979), 『奥羽北部の石器時代文化における古代シナ文化の影響について』, 『喜田貞吉著作集1』, 平凡社, pp.77~78.

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절강성 사해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한 고리형 귀걸이가 발굴된 사례가 있고 도야마(富山)현에서도 유사한 귀걸이가 발굴된 바 있어<sup>28)</sup> 동해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옥’의 교역이 성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러시아 연해주지방에서 북한, 중국의 중원지구, 남해지구, 베트남, 대만,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일본자생설과 대륙기원설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형 장신구는 중국 동북부에서 발생한 썩룽와(興隆窪)문화(8200~7800년전)의 대표유물이기도 하며 또 발굴지역을 보더라도 중국의 신석기 전기에 해당하는 문화지대인 길림성(吉林省)을 포함한 중국의 동북부에 걸쳐 있고 심지어 내몽고지역의 유적과 요녕성(遼寧省)의 사해유적에서도 7800년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리형 장신구가 출토되기도 했다.

고리형 옥제품이 아니라도 오누키 마사오에 따르면 극동지역에 공통적으로 발굴되는 평저(平底)토기의 원형이 썩룽와문화권에서 발굴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sup>29)</sup> 야마가타(山形)현에서도 약 5000년전에 해당하는 조몬시대 중기 유적에서 중국고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도끼도 발굴되는 등 이미 5000년전 동해 북부지역에서는 바다를 사이에 둔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몬시대 중기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에 ‘경옥제대주(硬玉製大珠)’가 있다. 경옥은 흔히 ‘비취’라는 옥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크기가 5cm 이상 되는 단단한 옥석을 타원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특징이다. 경옥은 말 그대로 경도가 6.5~7.0정도로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석은 망치로 두들겨도 잘 깨지지 않는다. 게다가 그 단단한 옥석 한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여간해서 쉬운 기술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옥제대주’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금속기가 전래되기 이전에 단단한 옥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천공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27) 山内清男·佐藤達夫(1964), 앞의 책, pp.135~147.

28) 浅川利一·安孫子昭二編(2002), 앞의 책, p.26.

29) 大貫静夫(2010), 앞의 책, p.145.

의미한다. 이 기법을 소위 ‘관추(管錐)기법’이라 말하는데 후지타 후지오에 따르면 이 기법은 중국대륙 특히 중국남부 주변지역에서 개발된 것이며 기원전 3000년대에는 지금의 홍콩부근에서 이 기법이 활용된 옥기(玉器)문화가 출현했다고 한다. 그는 또 일본에서 경옥제대주의 출현시기가 조몬시대 전기 말에서 중기 초(기원전 3000년전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에서 성행한 경옥제대주 문화가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흐름과 제작기법도 일본열도에 전파된 것이라 추정했다.<sup>30)</sup>

교토(京都)대학 원자로 실험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일본에서 비취 및 유사 옥석의 산지는 전국에 대략 10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고고학상의 유물원석으로서 이용된 산지는 니가타(新潟)현의 오미(青海)와 이토이가와(糸魚川)등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사시대에서 고대에 이르는 전국 유적에서 출토되는 비취 가공물은 대부분 이곳에서 생산된 것이라 한다.<sup>31)</sup> 특히 ‘경옥제대주’의 전성기는 조몬시대 중기 말에서 후기 초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규슈남부지역인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홋카이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옥’은 조몬시대에 동해를 해상교통로로 활용하면서 서일본지역과 한반도, 나아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물로 규정한 문명학자 고바야시 미치노리(小林道憲)의 지적<sup>32)</sup>에서 보듯이 경옥제품의 운반과 함께 그 가공기술도 항해를 통해 환동해 지역으로 전파되며 수정이나 비취라는 새로운 경옥소재의 이용을 더욱 촉발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유적의 의미

조몬문화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고고학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물

30) 藤田富士夫(2008), 『日本海をめぐる玉生産交流』,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pp.55~58.

31) 앞의 책, p.60.

32) 小林道憲(2006), 『古代日本海文明交流圏—ユーラシアの文明変動の中で』, 世界思想社, p.14.

의 발굴성과나 유적의 분포가 동일본(東日本)에 편중된 점에 기인하여 소위 ‘東高西低’의 인식이 정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조몬문화 역시 대륙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으로 형성된 일본의 원시문화라는 논리로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서일본지역의 잇따른 발굴성과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에 대전환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발굴성과가 바로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靑森)현에 소재하고 있는 산나이마루야마(三内丸山)유적이다. 1992년부터 지속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 산나이마루야마유적은 지금까지 ‘작고 보잘 것 없는’ 조몬시대에 대한 인식을 뒤집고 ‘조몬문명론’·‘조몬도시론’으로 불릴 만큼 메가톤급에 해당하는 성과라 평가받고 있다.<sup>33)</sup>

지금으로부터 약 5400년전인 조몬시대 중기로 추정되는 이 유적에서는 발견된 취락만 500곳이 넘고 향시 정주인구는 대략 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부지면적이 300미터나 되는 대가옥터, 지금까지 약요이시대 유적으로 여겨진 고상(高床)식 건조물, 폭 15m크기의 도로망 등 원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하고 또 고도기술이 적용된 유물들도 함께 발굴되어 규모면에서 보면 역대 최대급이라할 수 있다.

그 중 먼저 거대 취락유적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조몬시대의 대형 취락지는 1974년 발굴된 도야마(富山)현에 소재한 후도도(不動堂)유적으로 이곳에서 발견된 수혈식주거는 지름이 17m나 되는 비교적 큰 타원형 주거였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조몬시대의 수혈식주거가 지름 5m정도의 원형에 평균부지면적이 19㎡ 정도였다고 할 때 이곳에서 발굴된 주거터는 그 보다 6배나 큰 규모였다. 게다가 지름 1m, 깊이 1m의 커다란 기둥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좌우로 5개씩 나열되어 있고 양쪽 끝 중앙에는 또 3개씩 기둥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으며 그 중앙 축 선상에 4개의 화로터가 질서있게 나열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칭적인 구조에 입각한 계획성있는 취락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키타(秋田)현의 스기자와다이(杉沢台)유적에서는 지름 31m, 반지름 8.8m의 거대 주거지가 발견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해에 면한 서일본지역에서 발견된 타원형 대형주거유적은 90곳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초에는 이시가와(石川)현 노토초(能都町)에 소재하는 마

33) 今村啓爾(1999), 앞의 책, p.174.

와카(真若)유적에서는 지름 약 1m의 거목과 그 거목을 반으로 쪼개 바깥쪽을 향하도록 둥글게 배치한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거목을 활용한 건조물의 계통을 잇고 있는 곳도 바로 산나이마루야마유적이다. 이 유적의 북서부 언덕에는 지름 1.8m의 기둥을 박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여섯 군데 발견된 바 있는데, 그 구멍에 거목을 세우고 그 기둥의 10m위에 고상식건조물을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건조물의 발굴에 대해 비교문명학자 이토 순타로(伊東俊太郎)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집회장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sup>34)</sup> 오누키의 연구에 따르면 극동시대 중 평저(平底)토기가 공통적으로 발굴되는 요서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적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sup>35)</sup>하며 이 건조물은 혼슈 북부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軽)해협을 지나는 배들이 이정표로 삼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망루적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sup>36)</sup>

따라서 동해에 면한 서일본지역에서 도호쿠지방에 분포하는 거목 또는 거목을 활용한 대형건조물이 의미하는 것은 서일본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전파가 동아시아의 선진문명이 전파되기 이전인 조몬시대에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유력한 근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몬시대의 대형 건조물의 제작 전통은 그 이후 역시 대형 목조 건조물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이즈모 타이사(出雲大社)의 원류 찾기에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sup>37)</sup>

여기서 눈을 외부로 돌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이 성행하던 조몬시대 중기에 내몽고자치구나 중국의 요녕성(遼寧省)서부의 내륙부에서 발전한 홍산(紅山)문화가 쇠퇴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홍산문화의 쇠퇴와 더불어 조몬시대 중기문화가 발전했을 가능성이다. 야스다 요시노리(安田喜憲)의 견해에 따르면 홍산문화는 석기를 바탕으로 한 천지모신(天地母神)의 신앙과 용(龍)의 신앙을 특징으로 한다.<sup>38)</sup> 실제로 산나이마루야마유적

34) 伊東俊太郎(2008), 『比較文明学から見た日本海文明交流圏』, 『日本海学の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p.30.

35) 大貫静夫(2010), 앞의 책, p.147.

36) <http://sannaimaruyama.pref.aomori.jp/index.html>, (검색일 2012.6.22)

37) 伊東俊太郎(2008), 앞의 책, p.32.

38) 安田喜憲(2008), 『越国の起源』, 『日本海学の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pp.77~78.

에서 출토된 엄청난 양의 유물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조몬시대 중기문화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뱀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토기(土器)이다. 니가타(新潟)현에서 발굴되어 ‘화염식토기’라 불리는 이 토기의 상부에 붙어있는 장식이 화염 모양을 하고 있어 ‘화염식토기’라 칭하고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화염보다는 뱀을 조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특색 있는 유물이 바로 ‘토우(土偶)’이다. 산나이마루야마유적에서는 무수히 많은 토우가 출토되고 또 그 모양이 대부분 여성을 상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대지모신(大地母神) 신앙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홍산문화의 특징이 ‘천지모신’과 ‘용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때 5400년전 일본열도 북부에 뱀 신앙과 대지모신 신앙이 나타난 것은 홍산문화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기후의 악화로 인해 대량으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산나이마루야마지역에 정착하여 거기에서 조몬시대 중기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sup>39)</sup>

또한 산나이마루야마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앞서 소개한 지금의 니가타(新潟)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취제품과 홋카이도산 흑요석(黑曜石)도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비취제품은 산나이마루야마 유적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쓰가루(津軽)해협을 거쳐 홋카이도북부인 레이분토(礼文島)에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또 사할린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에서도 발굴되고 있다. 또한 니가타현에서 동해를 따라 남하하여 규슈에 까지 미친 것으로 보아 당시 항해를 통한 교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 6. 맺음말

일본의 비교문명학자 이토 순타로(伊東俊太郎)는 기존의 ‘기본문명’과 ‘ 주변문명’이라는 정적인 문명권대신 동적이고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문명교류권’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문명은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의 태평양 문명교류권, 서쪽의 동해 문명 교류권, 그리고 남쪽의 동중국해 문명교

39) 앞의 책, p.78.

류권이라는 3대 문명권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형성, 발전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40)</sup> 이에 따라 바다에 대한 인식도 섬나라 국민으로서의 고립성을 초래하는 자연조건이라는 기존인식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교통로이자 선진 문화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통신경로라는 인식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흐름은 최근 원시 및 고대 동아시아 교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조몬문화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조몬문화의 연구는 조몬인을 선주민이 아닌 일본인의 실제 조상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의해 전개된 조몬문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열도 내의 고립적이고 단일적인 문화관에서 벗어나 그 영역을 동아시아로 확대하면서 상호 관련성과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에 입각한 조몬사회론·조몬문명론으로 체계화시키며 새로운 조몬문화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고도성장이후 급증한 원시 유적의 발굴조사와 그에 따른 고고학적 성과의 축적을 들 수 있다. 이는 문헌사료의 재해석과 지역문화의 특색을 구하는 시각을 크게 촉발시키면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몬시대 동아시아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왕성한 발굴성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당시 항해술을 입증할 만한 항해도구로 현재까지 출토된 것은 기껏해야 간단한 통나무배 정도라는 점, 그리고 일본의 동해를 둘러싼 조몬문화는 원시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동해연안의 문화연구에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내의 발굴성과만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환동해 지역의 발굴성과와의 비교검토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동해 문화 연구에도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이며 또 그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주목되는 곳이 바로 환동해지역이라 할 수 있다.

40) 伊東俊太郎(2008), 앞의 책, p.23.

### 〈参考文献〉

- 伊東俊太郎(2008) 『比較文明学から見た日本海文明交流圏』,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 今村啓爾(1999) 『縄文の実像を求めて』, 吉川弘文館.
- 大貫静夫(2010) 『縄文文化と東北アジア』, 『縄文文化の輪郭(縄文時代の考古学1)』, 同成社.
- 岡本勇(1998) 『縄文と弥生』, 未来社.
- 門脇禎二(1981) 『日本古代政治史論』, 塙書房.
- \_\_\_\_\_ (1983) 『日本海の地域史』, 『歴史公論(通巻88号)』, 雄山閣.
- 喜田貞吉(1979) 『日本民族の構成』, 『喜田貞吉著作集 8』, 平凡社.
- \_\_\_\_\_ (1979) 『奥羽地方のアイヌ族の大陸交通はすでに先秦時代にあるか』, 『喜田貞吉著作集 1』, 平凡社.
- \_\_\_\_\_ (1979) 『奥羽北部の石器時代文化における古代シナ文化の影響について』, 『喜田貞吉著作集 1』, 平凡社.
- 木村英明(1997) 『シベリアの旧石器文化』,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 小林道憲(2006) 『古代日本海文明交流圏—ユーラシアの文明変動の中で』, 世界思想社.
- 佐伯有清(1986) 『日本の古代国家と東アジア』, 雄山閣.
- 佐原真(1983) 『日本海沿岸の弥生文化』, 『歴史公論(通巻88号)』, 雄山閣.
- 佐々木藤雄(2004) 『広瀬和雄『日本考古学の通説を疑う』を疑う』, 『異貌』第22号.
- 谷口康浩(2010) 『縄文時代概念の基本的問題』, 『縄文文化の輪郭(縄文時代の考古学1)』, 同成社.
- 長谷部言人(1973) 『日本民族の成立』, 『論集・日本文化の起源 5』, 平凡社.
- 埴原和郎(1993) 『日本人の形成』, 『岩波講座・日本通史 1』, 岩波書店.
- 藤田富士夫(1990) 『越と出雲との交流』, 『古代の日本海文化』, 中央公論社.
- \_\_\_\_\_ (2008) 『日本海をめぐる玉生産交流』,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 \_\_\_\_\_ (2008) 『日本海をめぐる玉生産交流』,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 마요다清野謙次(1944) 『日本人種論変遷史』, 小山書店.
- 桃木至朗 編(2008)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 安田喜憲(2008) 『越国の起源』, 『日本海学の新世紀・総集編(8)』, 角川書店.
- 安孫子昭二(2002) 『縄文時代の渡来文化の研究略史』, 『縄文時代の渡来文化』, 雄山閣.
- 柳田国男(1917) 『山人考』, 『定本柳田国男集(第4巻)』, 筑摩書房.
- 山内清男・佐藤達夫(1964) 『日本原始美術 I』, 講談社.
- 八幡一郎(1936) 『日本先史文化と大陸の関係』, 『北アジア考古学(八幡一郎著作集 4)』, 雄山閣.
- <http://sannaimaruyama.pref.aomori.jp/index.html>.(검색일 2012. 6.22.)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7일

게재결정: 8월 01일

<Abstract>

**A consideration of the theory on jomon culture  
and the primitive cultural exchange in the East Sea rim**

Recently in Japan, It is changing of the recognition about the East sea that is th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routes for freely the delivery of information between Japan and other areas. Also the importance are being raised up in culture exchanges among civilizations of the sea. This theory is also primitive and ancient Asian exchanges are giving increasing attention to. And the current perception of jomon-culture are demanding a fundamental review.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Japan, the study of jomon culture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at is not a lonely and poor in jomon culture, a culture based on the macroscopic viewpoint, but in a comprehensive look at the theory of jomon civilization. In addition, the movement to erect a new images of jomon culture remarkable.

In Japan, As more the research of jomon culture increases, become relationship in the East sea rim. Therefore, future research achievements in Japan and the East Sea rim, including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need to review. This results in studies in South Korea's east coast native will be a great stimulant. Another trend that has gotten stronger the more attention it can be called the East sea rim.